

# 광주시-아일랜드, 경제·문화·종교 협력 강화 나선다

### 강기정 시장, 윈트럽 주한아일랜드 대사 접견 장애인권증진 활동 업적 천노엘 신부 추모

광주시가 아일랜드와 경제·문화·종교 협력 강화에 나섰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를 접견. 광주와 아일랜드 간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2024년 윈트럽 대사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광주를 첫 방문한 이후 2년여 만에 이뤄졌다.

오는 7월 아일랜드 귀국을 앞두고 '민주주의의 도시'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윈트럽 대사는 코트 속에 한복 저고리를 곁에 차려입어 눈길을 끌었다.

윈트럽 대사는 "대사 임기가 끝나기 전, 세계 큰 감동을 준 광주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며 "광주가 세계 민주화에 영감을 끼쳤다는 사실을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과 제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를 따뜻하게 기억해준 윈트럽 대사에 감사하다"며 "광주는 전 세계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도시'로 기억되고 있다. 이제는 광주만의 끼와 문화를 키워내 세계 어느 도시도 부럽지 않을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강기정 시장과 윈트럽 대사는 이어 종교 분야를 중심으로 한 광주와 아일랜드

의 90여 년 교류 역사를 돌아봤다.

아일랜드에서 창설한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는 지난 1934년부터 광주에 회관을 두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친숙한 '성 요한 병원'은 아일랜드에서 파견한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가 지난 195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윈트럽 대사는 "아일랜드의 수도자들은 광주에 아주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아일랜드 사람들도 이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60여 년 동안 광주에서 활동하며 장애인 인권을 증진하고 돌보시다 지난해 선종한 천노엘 신부에 대한 추모의 뜻을 광주에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아일랜드 간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윈트럽 대사에게 선물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우리 시와 아일랜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지방기상청과 장성머거리통합지원센터는 20일 폭염·한파 등 기상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광주기상청, 장성 배후마을 기상정보 전달 장성머거리통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광주지방기상청은 장성머거리통합지원센터와 20일 폭염·한파 등 기상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성군에서 운영 중인 배후마을 이동장터를 통해 생활밀착형 기상정보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기상청은 폭염·한파 영향예보와 단계별 행동요령, 기상특보, 위험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센터는 이동장터 차량 전광판, 외부 모니터, 음성 안내 시스템을 활용해 배후마을 주민에게 기상정보를 알린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동장터 일정에 맞춰 폭염 피해 예방 공동 캠페인을 추진해,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야외활동 자제 안내와 함께 생수 전달, 연일질환 예방 행동요령 안내 등을 진행한다.

장성 배후마을 이동장터는 농촌 마을을 정기적으로 다니며 생필품 판매와 함께 어르신 안부 확인 등 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현숙 광주지방기상청장은 "폭염과

한파는 예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동장터를 활용한 영향예보 전달이 농촌 오지마을 기상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령층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우정 장성머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는 "배후마을 이동장터는 단순 물품 판매를 넘어 어르신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 복지 서비스"라며 "이번 협약으로 기상정보가 생활 속 안전 정보로 전달돼, 어르신들이 기상 위험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인사**

**광주대학교** △박경중 대학원장 △강현욱 입학처장 △김경태 대외협력처장

##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후 약물 복용 효과, 첫 1년에 집중

### 광주기독병원·고대구로병원 공동 연구팀 성과

광주기독병원과 고대구로병원 공동 연구팀은 최근 스텐트 시술을 받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레닌-안지오텐신계 저해제(Renin-Angiotensin System inhibitors·RASi) 복용 효과가 첫 1년에 집중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레닌-안지오텐신계 저해제는 다양한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표준 치료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심근경색이나 고위험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장기간 처방되는 경우가 많지만 증상 호전 이후에도 약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일정 기간 이후 중단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

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레닌-안지오텐신계 저해제 치료 기간에 따른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과 사망률을 비교 분석해 최적의 치료 유지 기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KAMIR-NIH) 데이터에 등록된 환자 중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을 받은 ST분절상 심근경색(STEMI) 환자 5017명을 대상으로 레닌-안지오텐신계 저해제 복용에 따른 시기별 효과를 추적 분석했다.

이 결과 퇴원 시점부터 첫 12개월 동안



이승욱 광주기독병원장(사진)은 "좌심과 혈압 조절 효과가 비복용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시술 후 첫 1년을 주요 심혈관 사건 없이 보낸 환자들의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레닌-안지오텐신계 저해제 지속 복용과 생존율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승욱 광주기독병원장(사진)은 "좌심

복용한 환자는 40% 이하인 환자군에서 초기 생존 혜택이 가장 컸다"며 "모든 환자군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고위험군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환자 맞춤형 관리' 전략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기에 심장 기능(좌심실 구출률) 개선 효과가 비복용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시술 후 첫 1년을 주요 심혈관 사건 없이 보낸 환자들의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레닌-안지오텐신계 저해제 지속 복용과 생존율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승욱 광주기독병원장(사진)은 "좌심

실 구출률이 40% 이하인 환자군에서 초기 생존 혜택이 가장 컸다"며 "모든 환자군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고위험군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환자 맞춤형 관리' 전략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팀은 이승욱 광주기독병원장, 최병길 광주기독병원 임상시험센터장,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나승운 교수, 고려대학교 오동주 명예교수로 구성됐다. 논문은 '약물출시-경미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 받은 ST 분절상 심근경색 환자에서 레닌-안지오텐신계 억제 치료 기간의 최적화'는 국제 학술지 'Coronary Artery Disease' 지난 6일자에 게재됐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농협 전남본부, '인력난 해소'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농협 확대

### 설명회 열고 운영방향 공유...내년 50곳 이상으로 늘려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농협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운영 방향과 향후 확대 계획을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2026년 사업 참여 농협과 2027년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설명회는 △사업 지침 및 추진 방향 안내 △가속사건 건립 지원사업 설명 △우수 운영 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본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속

적인 홍보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농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5개 농협이 참여했으며, 내년까지 참여 농협을 5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용 교육'도 기존보다 확대해 20개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



농협 전남본부는 20일 본부 대강당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농협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용·운영해,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영농철에 근로자를 일(日) 단위로 농가에 공급하는 제도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과 농업인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농협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게시판

**알림** △일기정정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상보통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 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죽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클레니지(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차매매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운세 (음력 1월 7일)

- |  |   |  |
|--|---|--|
| 48년생 새것 들어오고 묵은 것 나가는 시기<br>60년생 따로 따로 다뤄야 할 문제다<br>72년생 문서 이동 구실수에 오르게 된다<br>84년생 주도면밀하게 진행해야 할 시점<br>96년생 둘 다 내 것이 아니니 빨리 건네줘라 | 49년생 도로상에서 조심해야 안전이 보장 된다<br>61년생 성매매 죄우하는 중대한 기로에 선다<br>73년생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라<br>85년생 이해하기 힘든 판세를 직면하게 된다<br>97년생 조금 모자라긴 해도 양호한 편이다 | 50년생 주위 여건이 귀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br>62년생 말을 신중히 할 때<br>74년생 전가하지 말고 역할을 충실히 해라<br>86년생 흐르는 물처럼 진행이 순조롭다<br>98년생 상대로부터 호감을 얻는다 |
| 51년생 헛소문으로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라<br>63년생 욕심을 버리면 성공 한다<br>75년생 사업상의 많은 이익이 생긴다<br>87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움 일이 기다린다<br>99년생 연인과 이별의 염사가 있다          | 52년생 사소한 사건에 밀려 중요한 일 놓친다<br>64년생 뇌물 조심, 적은 것이라도 돌려줘라<br>76년생 남쪽으로 확장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br>88년생 답답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 53년생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해 난감하다<br>65년생 상대는 귀하의 마음을 알지 못 한다<br>77년생 평소 예상대로 펼쳐지겠다<br>89년생 고기가 큰 바다로 나가는 때                       |
| 54년생 자식 걱정으로 분주하고 피곤하다<br>66년생 중전대로 밀고 나가면 편안할 것이다<br>78년생 뒷사람과 약하면 큰 도움이 된다<br>90년생 똘은 고달포도 보람은 있다                              | 55년생 전체를 아우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br>70년생 속 좁은 생각을 버려라<br>79년생 그것은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br>91년생 과정이 너무 심하면 오히려 손해 본다                            | 56년생 부부간 마찰 빚게 되니 주의할 때<br>68년생 전후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br>80년생 배우자의 관계구설 운을 주의하라<br>92년생 취득과 상상의 길림길에 서게 된다               |
| 57년생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본다<br>69년생 그대로 유지해나 가는 것이 좋다<br>81년생 인연이 맺어지지 않는다<br>93년생 열성을 다 해야 할 시기                                      | 58년생 이 세상에 특별한 장군은 없다<br>70년생 속 좁은 생각을 버려라<br>82년생 서두를 필요는 없다<br>94년생 헛소문으로 교제가 끊길 수 있다   | 59년생 배우자에게 털어놓고 의논하라<br>71년생 이유 없이 친절한 남자를 경계하라<br>83년생 문제없으니 돈 근심하지 말 것<br>95년생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                      |